

『알수록 행복해지는 돈의 비밀』

조성표(2008), CUP

오창섭(서라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리스도인의 돈 문제는 우리의 일상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저자는 이 책의 저술 동기에 대해 돈이 우리의 일상과 영적 생활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돈에 매이거나, 혹은 부정하는 극단에서 벗어나 제대로 알고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돈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본연에 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알수록 행복해지는 돈의 비밀』, 책 제목이 재미있고 의미심장하다. 돈의 비밀을 알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저자의 기본철학은 돈의 가치중립성과 이의 효과적인 활용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이며 이것이 행복에 이르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수긍이 간다.

이 책은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회계학교수로서 돈에 대해 전문가인 저자가 돈에 소명을 가지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돈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서 돈을 어떻게 벌고 쓰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자와 같은 전문인 사역자들의 역할과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폴 스티븐스가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에서 밝히고 있듯이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은 교회나 세상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들 자신의 사역을 위해 구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역은 부족한 일들을 위해서, 또는 단지 교회 부서의 일에 평신도들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목사의 일을 분담시키는 것도 아니며 이는 목사님들의 지위 하락과 평신도들의 지위 상승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한걸음 나아가 목회자는 성도를 구비시키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복사시키는 대신 그들 고유의 사역을 개발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신도들은 그들 스스로의 고유한 사역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비될 때에 목사나 평신도가 다 같이 고귀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저자와 같은 회계분야의 전문가가 돈에 대한 성경적 원리와 실제적 지침들을 저술의 형태로 세상에 소개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사역이 된다. 중요한 사실은 단지 돈에 대한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그 내면의 동기가 무엇이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여부일 것이다. 20여년 이상을 가까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저자는 확고한 신앙과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균형 잡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삶의 모습들이 책의 군데군데 소개됨으로써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

2장은 돈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우상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조망하고 있다. 돈이 모든 가치평가의 척도가 되어가는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돈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소유하기 위해 성경의 여러 인물들, 예를 들면 솔로몬과 아브라함을 통해 재물의 축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와 부에 얽매인 젊은 관원을 통해서 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삭개오를 통해서 부의 허망함을 발견하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인 그의 삶을 통해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대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

한편 부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우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인데 문제는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물에 대한 탐욕을 줄이는 것과 재물을 대신 맡은 자, 즉 청지기로서의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쓸 수 있다고 인정받을 때에만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물질에 대해 온전한 헌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다가온다.

3장에서는 사람들이 왜 부를 가지려고 애쓰는지 부에 대한 열망의 이면에 감추어진 불안 심리와 그 원인에 대해 밝히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넘쳐나는 시대에 과소비가 사회에 만연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무분별한 카드 남발과 카드광고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경고한다. 특히 신용사회가 반드시 장밋빛 미래만을 담보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통계자료와 미래학자의 예언을 통해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다. 돈을 벌면 행복해진다는 현대 사회의 조급증과 이로 인한 물신주의에 대해 경고하면서 믿는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직업적인 능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 신중한 재정관리라는 것이다. 특히 베푸는 삶이야말로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진 불안감을 해소하며 영적 평안에 이르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4장에서는 돈이 주는 영적인 풍성함의 성경적 원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두 가지 이유를 가족들의 기본적인 필요 충족과 하나님 사역에 대한 동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창조 원리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라는 것을 저자는 강조한다. 아울러 재물을 소비하는 두 가지 동기를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필요’에 해당되고 어디까지가 ‘욕망’에 해당되는지 그 적정선에 대한 구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돈에 대해 메이지 말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건을 구입하기 전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과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재물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라고 조언해 준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재물의 두 번째 용도는 헌금과 나눔 두 가지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헌금 외에 교회안의 성도와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나눔은 모든 성도들이 훈련이 되어야 하는 실천 원리이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구제에의 요청은 오늘날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필수적이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명기 15:11).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히브리서 13:16).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디모테전서 6:18).

구제와 나눔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यो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구제하는 자에 대해 성경에서는 많은 축복을 약속하신다.

홀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언 11:24-25).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잠언 19:17).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누가복음 6:38).

하나님은 구제하는 것을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생의 축복까지 주신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목마른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31-40).

결국 자신의 필요에 해당하는 한 그릇, 두 그릇은 자신이 먹되 그 이상은 이웃에게 베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디모데전서 6:8)’ 자족하면서 나누어줄 수 있는 영적 풍성함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장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의 재정 관리이다. 가정이라는 현장에서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되어야 하는지 성경의 원리와 저자의 경험을 통해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특히 가계부는 영적 바로미터로서 부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자녀들에게 바른 재정 습관을 심어주기 위한 부모의 모범과 건전한 소비습관 교육을 강조하면서 탐닉적인 소비와 쇼핑 중독 등 돈 쓰는 범위와 과소비의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할 것과 돈이 주는 영적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일조를 드리도록 조언해 주고 있다.

5장은 돈을 관리하는 방법, 특히 재테크와 투자요령, 보험 가입, 노후대비에 이르기까지 지혜로운 재물사용에 대한 재정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이 장에서 저자는 재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직업적 능력을 유지할 것과 수입과 소비의 재정적 균형을 유지할 것을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채와 보증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신용 카드 사용에 유의해야 하며 재정 관리를 위한 가계부 작성 등으로 돈의 흐름을 항상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식비와 경조사비, 사교육비, 통신비 등 가정에서의 불요불급한 소비항목들을 줄여야 할 이유가 제시되어 있고, 행복한 소비의 비결로서 절제 있는 소비생활과 함께 물건을 사기 전까지 한 달을 기다리는 ‘한 달 규칙’,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중고품 구입요령에 이르기까지 저자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지혜와 통찰력이 독자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한편 꼭 알아야 할 투자의 원리로서 여유 돈 투자와 위험에 대한 고려, 분산 투자 등 일반적인 투자원리 외에도 하나님에 대한 영적 투자를 제시하고 있

다. 특히 영적 투자에 있어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성경말씀에 근거하여 돈을 미리 떼어 놓아 현금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라고 권면한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비결이며 영적 평안함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축과 투자가 믿음이 부족한 행위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후 아이들의 교육이나 미래의 소득 감소, 우발적인 일들에 대비하기 위해 소득의 일부를 저축해 투자하는 것은 비성경적임을 밝히고 있다. 중요한 것은 투자의 동기와 자세라는 것이다. 정당한 목적 없이 돈만을 축적하려는 투자는 맘몬 우상을 섬기는 것일 수 있지만 저축, 투자, 보험, 교회의 건축헌금 등과 같이 개인이나 교회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행위가 아니라 지혜롭고 합리적인 자세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6장은 에펠로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영적 평안에 이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제시하고 있다. 돈과 관련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이를 통해 어떻게 영적 평안에 이를 것인지에 대한 저자의 신앙관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재물을 단순, 소박하게 대함(Simple Life)으로써 재물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불필요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것과 작은 물질이라도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상태가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다. 재물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만 평안은 주지 못한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그런 이후 마지막으로 도전한다.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잡기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앞으로 진정으로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책은 기독교인의 재물에 대한 성경적 시각을 갖도록 고안된 책으로서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과 생활 속의 삶의 지혜를 제공해 준다.

돈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간다. 우리의 생명 역시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이다. 재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영원

한 상급을 주지도 못한다.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에 가치를 두고 살아서 꽤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결국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 재산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기리라(잠언 23:5)”

따라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 먼저 하나님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한편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은 이보다 몇 배나 더 중요하다. 돈을 하나님을 위해 잘 쓰는 것은 곧 신앙의 표현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하다. 이 땅에서의 축복과 내세에서의 축복이 함께 약속된 돈의 사용의 비밀에 대해 알려주는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읽고서 함께 도전받기를 소망한다.